

위 브릿지, 외로운 개척교회들 사이에 다리를 놓다

위 브릿지 1기 사역 감사예배
드리며 마무리

기독일보가 지난 11월 11일(화) 제1기 위 브릿지(We Bridge) 감사 예배를 드리며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독일보는 남가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제1기 사역을 마무리하며, 제2기 사역을 통해 텍사스와 타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제1기 위 브릿지를 통해, 총 50개 남가주 교회가 3년간 후원을 받았다. 또 BTS 솔라, Crover Inc. EHP 솔루션스 등 50개 단체와 교회가 후원에 동참했다. 참여 교회들은 “물질보다 더 큰 선물은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기억하고 계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2022년 9월,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대형교회들보다, 소형교회들에 더 깊은 타격을 줬다. 지난 3년의 기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위 브릿지의 손길은, 남가주 여러 개척교회에, 하나



기독일보가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기독일보

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묵묵히 개척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같은 처지의 동역자들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따뜻했던 날들이 기억을 남기며 마무리 됐다.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는 11일 오전 10시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EM 예배실에서 열렸다.

예배는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의 사회로 원하트미니스트리의 개척찬양과 김용근 목사(크레센타밸리교회)의 대표기도로 시

작되었다. 위 브릿지 교회 연합 찬양에 이어,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원로)가 ‘동역’(시편 133:1-3)이라는 제목으로 위 브릿지를 통해 회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라고 설교했다.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부른 찬양이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다. 주님께 나를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방법 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런데 디윗은 법궤를 옮기게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이 말씀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는 원래 음악을 했다. 처음 목

회를 시작했을 때, 설교 후 집에 오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가수야. 박수받는 비결을 알잖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연예인적 습관이 제 안에 남아 있었다. 한동안 그 부분을 두고 많이 싸웠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쇼’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며, “내가 인도하는 예배가 순수하게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가? 설교를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인기를 얻으려 하는 나 자신을 본다. 왜 예배가 인스턴트화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주님을, 말씀과 기도를, 성령님을 우리의 계획 안에 가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서, 시편 133편 말씀처럼 연합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훨씬이라고 했다.

“형제가 동거하며 서로 불잡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주디 한 기자 → 3면에서 계속

美 주간 성경 읽기율, 15년 만에 반등… MZ 세대 주도로 새 추세

바나 그룹과 글루(Gloo) 공동 조사
2025년 교회 현황 보고서

2025년 미국 성인의 주간 성경 읽기율이 42%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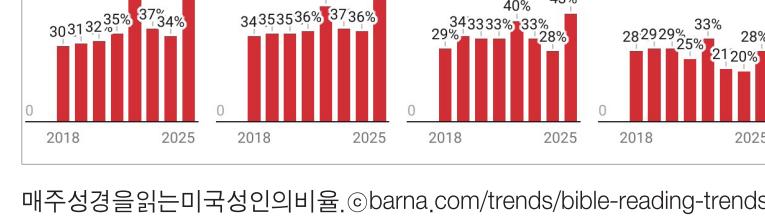
이는 기독교 연구기관 바나그룹과 글루(Gloo)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5년 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2000년에는 미국 성인의 39%가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2024년에 30%

로 떨어지기 전까지 수년간 변동하다가 올해 42%로 다시 상승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달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나그룹 데이비드 키나만 대표는 “2025년에는 성경 읽기가 크게 반등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영적 관심의 다른 징후들과도 일치하며, 기독교 신앙과 실천이 재설정의 순간을 맞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Young Men Lead Reading

% Of U.S. Adults Who Read the Bible Weekly



매주 성경을 읽는 미국 성인의 비율. www.barna.com/trends/bible-reading-trends/

2010년에 49%로 정점을 찍은 베이비붐 세대는 지속적으로 가장 높

은 수준의 성경 읽기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31%로 세대 중 가장 낮

았다. X세대는 현재 41%로 반등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성경에 대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6%p 상승한 50%에 이르렀으며, Z세대도 같은 흐름을 보여 불과 1년 만에 30%에서 49%로 증가했다.

2025년 보고서는 교회 출석이 주로 젊은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성경 읽기의 급증도 이러한 추세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혜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율/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Young Men Lead Reading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민변조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C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클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교회의 미래, 시니어 사역의 전문성에 달려 있습니다”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SPM02 등록 안내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1. SPM02기 수업 내용과 일정

- 일정: 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9일
- 매주 월요일 수업

날짜	수업	내용	강사
12/1/25	SPM201	교제 및 소셜 네트워킹	황성만
12/8/25	SPM202	영성 노년학	김기철
12/15/25			
12/22/25			
12/29/25	SPM203	시니어 정서적 웰빙	정명화
1/5/26			
1/12/26			
1/19/26	SPM204	시니어 정신 건강	박민희
1/26/26			
2/2/26			
2/9/26	SPM205	세미나_시니어 건강 운동	이유나

2. SPM02 입학 신청 (Enrollment Form)

- 11월 28일(금) 마감
- SPM02 입학 신청링크 <https://forms.gle/t3yzBLxQ8uTsYe3s8>
- QR 코드 첨부

3. 오픈 세미나 안내

- 일정: 11월 17일(월) 오후 4~6시(서부시간)
- 수업방식: Zoom, CPU 세미나 룸 현장 하이브리드
- 주제: 「나이듦의 미학(The Aesthetics of Aging)」
- 강사: 정재현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 정재현 교수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Emory University에서 종교철학 박사(PhD)를 받았다.
- 연세대 교무처 특임교수로 연구단을 운영하며, 종교와 신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주제로 연구하고 강의한다.
-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다수의 저서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 오픈세미나 신청링크 <https://forms.gle/6QLCoYtVYPSbY26>
- QR 코드 첨부

4. 오리엔테이션 안내

- 1차: 11월 19일(수) 저녁 7시 (Zoom)
- 2차: 11월 24일(월) 오전 10시 (Hybrid, CPU 세미나룸 + Zoom)
- 오리엔테이션 신청링크 <https://forms.gle/TmNrpknAhz6DK4k18>
- QR 코드 첨부



입학신청



오픈세미나

오리엔테이션



Prestige University
Lifelong Institute

문의: 황성만 목사 | Tel. (562) 536-0128 | Email : puli_pm@cpu.edu
홈페이지: [https://lifelong.cpu.edu](http://lifelong.cpu.edu)

CPU 평생교육원,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첫 모듈 성료

"교회의 미래, 시니어 사역의 전문성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이하 CPU) 부설 평생교육원(PULI)은 지난 11월 10일,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의 첫 번째 모듈(SPM01)을 은혜롭게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CPU 평생교육원이 "교회의 미래, 시니어 사역의 전문성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설한 1년 4모듈(4학기) 연속형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이민교회의 시니어 성도들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새로운 사역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번 SPM01에는 총 34명이 참여했으며, 미주 서부와 동부, 올랜도, 하와이 등 미 전역,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시니어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을 보여줬다. SPM01 모듈은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송병일 목사), '시니어 인생 완성학 개론'(김샬롬 박사), '시니어를 위한 소그룹 사역'(김재홍 박사)으로 구성되어 신학적 기초와 실제 사역의 현장을 함께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토론, 사례 발표를 통해 시니어 사역이 교회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명임을 확인했다.

평생교육원 이성희 원장은 "SPM01을 통해 시니어가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신했다"며, "이 과정은 1년 4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마다 새로운 학습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



CPU 평생교육원은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의 첫 번째 모듈을 마쳤다. © PULI

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시니어 사역의 비전을 품은 많은 분들이 이 이 여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CPU 평생교육원은 오는 12월 1 일(월)부터 두 번째 모듈(SPM02)

을 개강한다. '영성 노년학', '시니어 정서적 웰빙', '시니어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신학·심리·정신건강의 관점을 통합하여 시니어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돌보는 실천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김민선 기자

→1면 기사 <美 주간 성경 읽기율>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매주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5년 데이터에서는 반대로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보다 성경을 더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킨나만 대표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종교적으로 더 활동적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남성들이 성경을 가장 자주 읽는 세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팬데믹 이후 여성보다 남성의 성경 읽기율이 더 크게 반등했다"고 덧붙였다.

이 데이터는 종종 신앙과 거리가 있다고 여겨졌던 젊은 남성이 성경 읽기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경 읽기와 신앙적 신념의 간극

더 많은 미국인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의 무오성을 완전히 지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았다. 2000년

에는 43%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은 완전히 정확하다"는데 매우 동의했으나, 이 수치는 최근 몇 년간 40% 아래로 떨어져 현재는 36%를 기록했다.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44%만이 성경의 무오성을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킨나만 대표는 "성경 읽기 참여가 신념보다 앞서가고 있다"며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자주 펼치지만, 여전히 성경을 믿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신뢰 사이의 격차는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반드시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희미해지던 미국인의 신앙이 예전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의미는 더 깊어질 것이다. 신앙의 실천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물려나고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참여

함에 따라, 다음 세대는 기독교 신앙과 관심의 새로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회자와 사역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성경에 대한 개방성은 특히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기회를 제공한다.

킨나만은 "이제 교회는 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읽은 내용을 일상에 통합하도록 돋는 데 힘써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그 곳에서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집된 12,116건의 온라인 인터뷰가 포함됐다. 조사에는 연령, 성별, 인종·민족, 지역, 교육, 소득 등에 따른 표본 할당이 반영됐으며, 통계적 대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치가 적용됐다.

새생명비전교회 성경 특별 전시회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는 11월 16일(일)부터 30일(일)까지 3주간 성경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종교개혁부터 현대까지 성경, 찬송가, 공동

기도서 등 시대를 넘어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영혼으로의 초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남성수 목사)는 2025년 영혼으로의 초대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23일(주일) '동산으로의 초대'에서는 간증

및 동산별 전도 잔치가 진행된다.

12월 14일(주일) 오후 6시에는 '찬양으로의 초대'가 진행되며, 12월 21일(주일) 오후 5시에는 성탄 감사

주일 및 성탄 축하의 밤이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전교인들이 연극, 찬양, 연주, 댄스,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예정이다.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전기세 50~90% 절감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위브릿지 은혜 나눔… 연합과 동역의 열매를 나누다

→1면 기사 <위 브릿지>에서 이어서 또, 잠 4:9~12를 언급하며, 위브릿지의 동역자들이 연합의 줄로 하나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을 인용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했다.

2부 위 브릿지 은혜 나눔

2부 순서로 위 브릿지 사역 은혜 나눔이 진행됐다. 강태광 목사와 김금자 전도사(기독일보)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더섬기는교회), 정용암 목사(랜조한인교회), 곽수정 사모(LA ONE CHURCH), 김수정 사모(LA 성암교회)가 은혜를 나누었고,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폴킴 목사(BTS SOLAR 대표),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국윤권 목사(중현선교교회)가 격려사를, 이인규 목사(기독일보 대표)가 감사인사를 나누었다.

김영일 목사(더섬기는교회)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했다며, 후원교회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메시코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정용암 목사(데메클라 렌조한인교회)는 “개교회 중심적 배타주의를 넘어, 하나님을 실천하는 사역이었다”며 “이 사역이 한국과 세계로 확장되어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운동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LA에서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위 브릿지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했다. 왼쪽부터 김영일 목사, 정용암 목사, 곽수정 사모, 김수정 사모. ©기독일보

컴튼 지역에서 그곳 가정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LA 원처치(LA One Church) 곽수정 사모는 2022년 초, 비닷가에서 기도하던 중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라’는 감동을 받고, 검색했다가 우연히 위 브릿지 사역을 알게 되어 지원한 사연을 나눴다. 컨퍼런스 마감이 지났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고, 받아주셨다며,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제 이름이 적힌 테이블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라는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12인승 버스를 선물받아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교회로 향한다. 위탁아동 두 명이 함께 하게 되었고 술병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새 예배처도 주셨다. 위브릿지는 단순한 후원단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개척교회들 사이에 놓으신 디리이다. 그 디리 위로 기도와 사랑, 희망이 오간다. 키클한 밤 망망대해에 조명한 하나를 쏘아 올렸던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보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간증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LA성암교회(Holy Rock Church) 김수정 사모는 2020년 11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 교회를 개척했다고 나눴다. 그는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집 앞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집 주인에 의해 천막 절거 명령을 받고 예배처소를 찾아 헤맨 사건 등, 팬데믹 기간 중 교회를 개척하며 겪은 고충을 과 그기간 동행해준 한마음제자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회를 개척하여 감당해야 될 무게도 너무 커지만 주님의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 브릿지를 통한 그런 위로의 시간들이었다.”

송정명 목사는, 팬데믹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혔을 때, 위 브릿

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폴 킴 목사는 ‘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채워주셨는지 간증했다.

“하루 3천 명씩 죽어 나갈 때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4, 5개월이 걸렸다. 걸어서 LA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인규 목사님이 저에게 위 브릿지를 설명하셨다. 나 혼자 설 힘도 없을 때였다. 백만 불이 넘는 병원비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재정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보고 오히려 도우라고 하셨다. 그래서 시작했다.”

“시작할 때는 제가 한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 그런데 두 교회로 늘어났고, 또 2년이 지나서 세 교회가 됐다. 또 한 교회가 반밖에 후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또 반을 부담했다. 그래서 교회 3개 반을 섬겼다. 어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제가 시작할 때의 매출액의 3.4배로 늘려 주셨다. 이 불경기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는 코

비드 당시, 한국 교회의 교회들이 미주 이민교회를 돋기 위해 수천만 불의 현금을 보내주셨던 사실을 전하며, “이민교회가 어떻게 섬김의 방향을 회복할지 고민하던 중, 기독일보를 통해 동행의 길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윤권 목사는 “규모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좋은 목회자의 자세”라며, 이 사역을 통해 남가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인규 목사는, 눈길에 쓰러진 순례자를 등에 업고 걸어감으로써 자신도 동사하지 않고 그 순례자도 살릴 수 있었던 사우 씬다 싱의 일화를 언급하며, “나조차 살기 어려운 때이지만, 남을 살리려는 사랑이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이며, We Bridge 사역의 정신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가주를 넘어 미주로,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향한 연합의 다리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강문수 목사(OC 목사회 회장)의식사기도와 단체 사진 촬영, 접심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위브릿지 교회들과, 후원 교회들을 비롯해 충현선교교회, 귀생당, 서울메디칼그룹, BTS 솔라, 채안주자사 후원회, 월드쉐어 USA, 한국혜민병원, VITAPIA,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센터메디컬그룹 등이 후원했다.

갈릴리선교교회, 박호근 목사 초청 1일 말씀잔치 개최

“삶의 방향성 부제 변아웃, 표류로 이어진다”

갈릴리선교교회(한천영 목사)가 9일 오전 11시 예배에 새신자들을 초청해 ‘1일 말씀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하프타임코리아 대표 박호근 목사는 ‘인생의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먼저 ‘하프타임’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정리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작전의 시간이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항해’와 방향을 잊고 떠밀려가



갈릴리선교교회가 새신자들을 초청해 ‘말씀잔치’를 개최했다. © 기독일보

는 ‘표류’에 비유하며, 많은 사람들 이 삶의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성공이 아님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방향성이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변아웃되고 표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목사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

의 분석을 언급하며,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를 ‘후반전 체력부족’으로 보았다. 전반전에 모든 힘을 쏟아버리니 후반전에 뛸 힘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전반전의 열심보다 후반전을 뛸 힘이 중요하다”며 “그 힘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긴다. 하프타임은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박 목사는 인생을 바로 세우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정체성, 방향, 사명을 제시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바로 ‘나’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다.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무엇을 이루는가보다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는 “인생의 목적을 잊은 사람은 방황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며 “수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자. 수명으로 죽지 말고, 사명으로 죽는 인생이 되자”라고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l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득심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성암교회, 5주년 감사예배 “주께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

성암교회(김요한 목사)는 2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설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5주년 기념을 비롯해 새신자 전도 축제 및 두명의 권사 임직식도 겸해 거행됐다.

김요한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1~18절을 본문으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춰 있을 때 천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공원에서 예배드리며 행복한 공동체의 의미를 경험했다”며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으로 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이 담긴 자리다. 성암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 지난 5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인생의 여정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며 “많



성암교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권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 기독일보

은 사람들이 돈, 명예, 인정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매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우리 마음속, 예수님 이 계신 자리”라며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선한 목자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또한 “세상의 길 끝에는 허무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참된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줄게’라고 말씀하신다”며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귀한 복된 선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장수 목사(율림피장로 교회 원로)는 축사를 통해 “개척교회를 세우고 지금 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임직받는 두 분 권사님은 그동안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

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라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임직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아서, 가꾸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다. 두 분 권사님을 통해 성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크리스 죄 목사(CRC교단 Thrive 소속 한인 커넥트)는 “좋은 나라란 인류에 이바지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나라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 신실한 일꾼을 세워야 한다”며 “유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선교에 힘쓰며, 리더십을 존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조

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상면 목사(생명샘교회 원로)는 권면사에서 “임직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 기둥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해진다”며 “모든 성도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임직받은 권사들의 간증이 있었다. 박헬렌 권사는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배운 대로 지켜야 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인품을 잘 갖추고 믿음의 본이 되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연순 권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그 마음을 닮아가는 권사가 되기를 원한다”며 “겸손과 비전, 헌신으로 섬기며 주님께 ‘참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임직자의 간증은 교인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 전해졌으며,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토마스 맹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이지현 목사 안수 및 장립식 거행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GAKPC) 서부노회 이지현 목사 안수 및 장립식이 지난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예수생명팀교회(조준석 목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사회 전 총회장 흥성표 목사), 2부 성찬식(집례 서부노회 김영재 목사), 3부 안수 및 장립식(집례 서부노회 노회장 정완기)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 최영봉 목사(태평양 노회 노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디모데후서 2:1-4 봉독 후 김창영 목사(GAKPC 총회장)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성찬식은 김영재 목사의 집례 하에 진행되었다. 3부 안수식은 정완기 목사(서부노회 노회장)의 집례 하에 안수자 소개, 안수기도, 공포, 착의식, 악수례, 안수증 수여, 안수 및 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서부노회 이지현 목사 안수 및 장립식. © GAKPC

립 기념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흥성표 목사, 김창영 목사(총회장), 최영봉 목사, 조준석 목사가 각각 축사, 권면, 축사를 전했으며, 이지현 목사가 답사하고 이지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지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에서 목사로 임직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워주신 성직을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날 목사 안수 및 장립식 이후에는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진행되었다.

김민선 기자



무디 고 목사 제공

아버지 밤상교회 신학생 8명 배출

‘아버지 밤상 선교회’(대표 무디 고 목사)가 노숙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년간의 사역을 통해 현재 8명의 노숙인이 신학교에 재학 중이며, 내년 5월에는 이 중 한 명(나사로 전도사)이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무디 고 목사는 “노숙인을 단순

히 ‘홈리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영접해 집과 음식을 나누며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이들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다”고 사역의 비결을 밝혔다. 선교회는 변화된 이들과 함께 미국 50개 주에 50개의 제자 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다.

조셉 리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TRUSTED SCHOOL IN TOWN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LEARN MORE



당신의 평생 심장 지킴이

황인용

심장 내과 주치의

OC지점 BUENA PARK로

이전합니다

11월 17일부터 진료 시작

진료 과목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마비
부정맥 · 심부전증 · 하지정맥류
심장 팍막질환 · 경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 질환 · 혈초혈관 질환

심장과 혈관의 검사 및 치료

심전도 · 심초음파 검사
경동맥 · 복부 대동맥류 검사
하지 동맥 / 정맥 검사



새롭게 이전한 프리미어 심장 혈관 클리닉,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최고의 진료를 경험하세요.



OC 지점 (온비치 빌딩 건너편)

5797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 760-9988

진료시간 안내

8 AM - 5 PM

월 / 화 / 목 / *토 (*격주)

LA 지점 (올림픽 한국 플라자 2층)
3130 W OLYMPIC BLVD, STE #250
LOS ANGELES, CA 90006
(213) 528-1111

진료시간 안내
8 AM - 5 PM
수 / 금 / *토 (*예약제)

황인용
따뜻한 심장 혈관 내과
PREMIER CARDIOLOGY VASCULAR INSTITUTE

“AI, 유능한 도구이나 인간 고유의 의식은 대체 못해”

한국기독교학회, ‘AI와 기술시대의 영성’ 주제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기독교학회가 8일 오전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에서 ‘AI와 기술시대의 영성’을 주제로 제54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회에는 14개 회원학회 소속 약 35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 논문 발표와 개별 모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는 △윤철호 박사(장신대)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식 - 과학철학적 논의와 신학적 성찰’ △박옥주 박사(연세대)가 ‘마인드 업로딩의 인간학, 도덕적 창의성의 영훈론: 트랜스휴먼 신학 간신을 위한 제언’ △이윤경 박사(이화여대)가 ‘포스트휴먼 신학: 예전, 기술, 그리고 종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AI, 인간 대체가 아닌 인간성의 재발견에 있어”

윤철호 박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인간과 동일한 의미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는 질문은 현대 과학 철학, 신경과학, 그리고 신학을 관통하는 근본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최근 AI의 발전은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 언어 이해, 창의적 산출, 문제 해결 등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여겨졌던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대한 성찰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윤 박사는 오늘날 과학철학적 논의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인간 의식은 수십억 년에 걸친 자연 과정과 신경계의 발전을 통해 체화된 마음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이와 반대로, AI는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통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 산물에 불과하다. AI는 데이터 처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하지만, 인간과 같은 체험적, 감각적 경험은 결코 가지지 못 한다”고 했다.

또 “둘째로 인간 의식은 그 자체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체험을 동반하며, 이는 생명체의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AI는 단지 시뮬레이션된 응답을 바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며 “셋째로 인간 의식은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반면, AI는 그 자체의 내적 필요에 의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설정한 규칙과 데이터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AI와 인간 의식이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AI가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라며 “AI는 고도의 계산 능력과 패턴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은 결코 인간의 체험적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학적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어왔다. 만약 AI가 인간과 동일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전통적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독특한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AI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마음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품은 성경 속 바벨론 사건이나 선악과의 유혹과 유사하다”고 했다.

더불어 “인간이 만들어낸 AI의 의식은 결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그 수준은 반려 동물 수준의 유사 의식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박사는 “결론적으로 AI와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AI가 인간과 동등한 의식을 가질 수 없다”며 “AI가 인간 의식을 대체하거나 그와 동일시되 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고유의 신학적·도덕적·영적 능력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AI를 유능한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성을 중심에 두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I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본질을 재발견하는데 있다”며 “AI와의 만남은 인간 의식의 기원과 그 내면적, 관계적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며, 이 물음에 대해 과학·철학·신학이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과학기술 시대 속에서도 참된 인간성과 공동체의 선을 보존·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학, 영혼 및 인간성 개념 정립 위한 노력



한국기독교학회 제54회 정기학술대회 단체 사진. ©한국기독교학회 제공

필요

라는 민감한 논제를 다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영훈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인간성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변화나 유물론적 해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신학적 인간학의 전통적인 유산과 사유를 통해, 도덕적 창의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신학적 성찰이 뒷받침될 때만 이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먼 기술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전망하고 그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의 전제인 궁극의 트랜스휴먼 기술들이 현재로서 그 기술적 현실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트랜스휴먼 신학의 인간학적 제안들이 신학적 인간학의 영훈이해를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앞둔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학은 실현 가능성부터 불투명한 트랜스휴먼니즘 지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기보다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즉각적으로 우리 실존에 적용될 수 있는 영훈 및 인간성 개념 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하는 연구자들에게 더욱 냉철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요구된다”며 “연구자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적 이해도를 갖추고,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속성인 영훈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부족하다면, 기술 발전에 따른 육체적 변화

◇ 유한성 인정하는 삶, 인간 존재의 의미 회복하는 길

이윤경 박사는 “불교와 기독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음과 구원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며 “불교는 윤락의 굴레를 끊고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기독교는 구속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구원 개념이 점차 테크놀로지로 대체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불멸을 추구하는 신종 종교들이, 죽음을 거부하며 육체적 불멸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죽음을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현실로 전제하는 전통적 종교들이,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반해, 현대 사회는 죽음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죽음을 거부하는 디지털 불멸을 추구하는 세대에 대해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만, 결국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이 신의 존재를 초월하고 디지털 불멸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며 “인류가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의 시대로 진입하려는 흐름 속에서, 디지털 불멸을 실현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현대판 신화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오늘 날의 테크노-유토피아 프로젝트와 비교해 볼 때, 인간 존재의 의미와 유한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촉구된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했다.

그는 모 가뎃(Mo Gawdat)의 말을 인용해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성을 회생하고 있다”며 “인간은 본래 유한하고 유병한 존재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며, 유한성과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테크노-유토피아의 꿈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한다고 믿는 것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요구되며, 죽음을 인정하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행사는 주제 전체토론과 각 신학회별 모임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폐회예배로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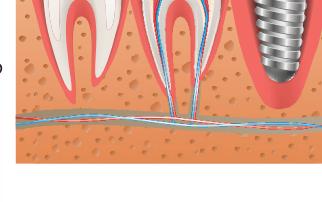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터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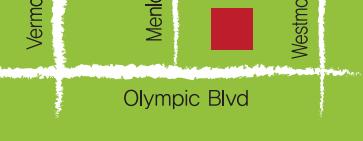
에스터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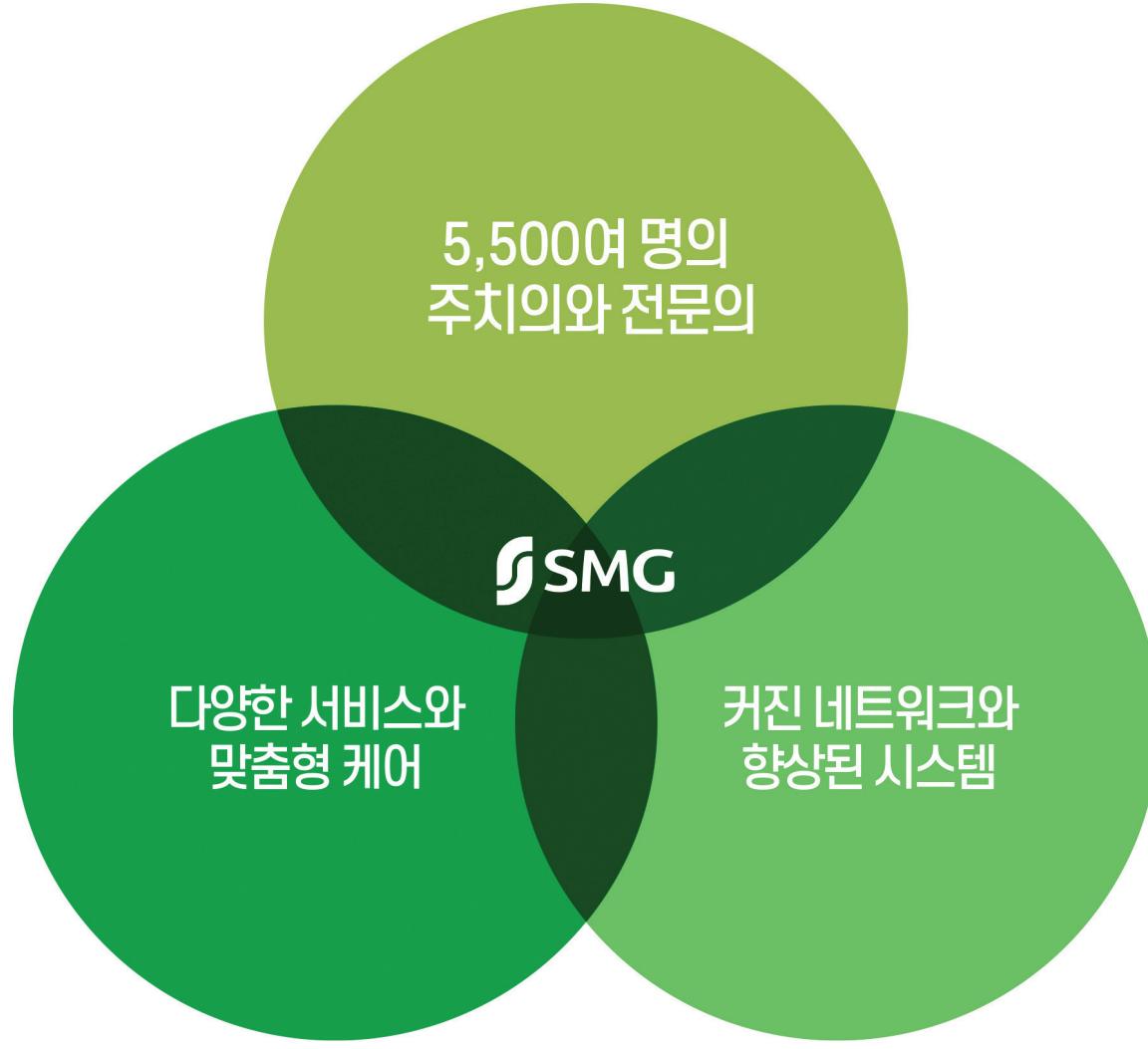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Olympic Blvd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섬세한 진료와 편안한 서비스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의전화: 800.611.9862



홍보대사 고두심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새들백교회 한인 목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

미국의 대형교회인 새들백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케빈 리 목사. 그가 새들백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최인수 목사, 기집) 총회 교육부·청소년부는 리 목사를 초청해 10일 대전광역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건강한 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디테일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다음세대 사역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를 주관한 침례교 청년연구소의 소장 박군오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세대의 신앙 단절과 교회의 건강성 약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자·사역자·신학생이 함께 모여 ‘건강한 교회의 본질과 다음세대 사역의 실제’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컨퍼런스의 강사로 나선 케빈 리 목사는 미국 새들백교회 위디어(Whittier) 캠퍼스의 경험목사(Experience Pastor)로 사역하고



미국 새들백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케빈 리 목사가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다.

있다. 한인 1.5세 목회자인 그는 유튜브 채널 ‘미국목사케빈’을 운영하며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목회 노하우를 국내외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집필한 책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을 통해 그가 새들백교회에서 배운 건강한 교회의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누며, “가치관이 목회 현실로 구현되는 디테일”的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2017년 새들백교회에 인턴십으로 지원했고, 2019년 3월 그 교회의 정식 사역자가 됐다는 리 목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그때부터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왔다. 배운 내용을 모두 나누라 하면 시간과 지면이 부족할 정도지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무슨 사역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②성장하는 교회는 전도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는다.

③소그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④영적 건강만큼 정신 건강을 돌봐야 한다.

⑤건강한 교회는 사모가 행복하다.

⑥교회가 성장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⑦사역자에게 쉼은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해 리 목사는 “일곱 가지 원리 중 처음 다섯 가지는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두 가지는 사역자가 놓치면 안 되는 원리”라며 “성장에는 방법과 원리가 있다. 방법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가지 원리는 미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효과적

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리 목사는 이 책의 애플로그에서는 “나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교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며 “지금도 미국교회에는 없는 통성기도가 그립고, 새벽기도회를 때때로 찾으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실천하며 사역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을 이미 오래 전부터 들어왔다. 그 말은 듣기 어렵고 속상하다”며 “그래서 작은 혼란이 잠시 오더라도,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사역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짚필 동기를 전했다.

리 목사는 “이 책에서 제시한 원리들은 결코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다.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지난 9년 동안 새들백교회에서 사역하며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경험과 내적 갈등이 모두 소용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강화된 이민 단속 시대, 교회가 다시 피난처 역할’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제8회 연례 심포지엄, 한인 교계·시민단체 공동선언 발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KASCN)가 주최한 제8회 연례 심포지엄이 지난 6일(현지 시간) 뉴욕 리틀넥 소재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강화된 이민 단속 시대, 한인 교회와 단체들의 연대와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에 대응해 한인 교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뉴욕지부 대표 도나 리버만(Donna Lieberman)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민단속 정책이 지역사회에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현실적 영향을 짚었다. 리버만 대표는 “이민자 단속이 강화될수록 교회와 커뮤니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연대하며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강화된 이민 단속 시대 한인 교회와 단체들의 연대와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공동선언문은 2025년 들어 강화된 미국의 이민정책이 수많은 이민자와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으며,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노동자 체포와 단속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부에서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민자보호교회뉴욕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지금 우리의 이웃 중 누군가는 이민단속과 불법체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인사회가 너무도 오래 침묵해왔다”며 “이 침묵을 깨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 이제는 함께 깨어 연

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인사회가 하나의 이슈를 중심으로 교회와 단체가 이렇게 연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연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도 “이민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이 있다면 한인회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저녁식사 후에는 ‘Concert for a Cause’ 기금 마련 음악회가 이어졌다. 음악회 시작 전 한인 단체들과 이민자보호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 1만7천 달러를 ACLU에 전달하는 순서도 있었다. 조원태 목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이민자 단속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 한 한인 노인의 사연을 언급하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 곁에서 있어야 할 책임임을 느낀다”면서 “오늘의 연대와 대응이 바로 그런 이웃들에게 닿는 실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에

는 테너 윤두현, 오보이스트 이정석, 양상률 아무제(Amusez), 재즈 보컬 전수희, 그리고 영어쿠스틱밴드(Young Acoustic Band)가 참여해 음악으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한인 교회와 기관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정보 교환과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민법 관련 교육, 법률 상담 및 세미나, 정신 건강 프로그램, 신앙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교회가 심리적·신앙적 피난처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명했다.

공동선언문은 “이민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겠다”며 “한인동포 이민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위한 안전망과 피난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원 기자

작은 나눔으로 복음과 희망을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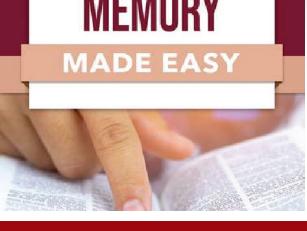
월드쉐어USA는 연말연시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핵심 성경 암송 및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주세요!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세요!

11월 15일 ~ 12월 25일

성경 필사 ► 로마서 쓰기 · 성경 암송 ► 성구 60구절 암송 (1인당 \$100 장학금)



World Share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절도 빈곤 아동들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와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北 감옥 갇혀있던 장문석 집사, 석방돼 중국으로 귀환



장문석 집사 ⓒ 한국 순교자의 소리

장문석(중국 이름 장원스) 집사는 북한 감옥에서 석방돼 지난 5일 중국으로 귀환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이하 한국 VOM)가 10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순교한 한 총회 목사와 함께 중국 장백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장문석 집사는 15년 형을 선고받고 12년 이상 복역했다.

한국 VOM 현수 폴리 대표는 장 집사가 조선족이라며 “2014년 11월에 중국에서 납치돼 북한 감옥에 갇혔다. 우리가 한총회 목사님과 진행해 온 북한 사역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 쪽에서 장 집사님을 납치한 것”이라고 했다.

장 집사가 납치·체포되고 15개월이 지난 뒤, 양육하던 지하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한 목사는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한국 VOM은 장 집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수감자 편지쓰기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수년 간 주도해왔다.

현수 폴리 대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어떤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 와서 의약 품과 필요한 물건을 사다 북한 장마당에서 팔기도 한다. 또 다른 북한 주민들은 중국 쪽 백두산 인근인 장백에 와서 약초를 캐러 왔다가,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 도움을 받는

김진영 기자

英 성공회, 예배 참석자 4년 연속 증가 코로나 이후 회복세 이어가



©The Church of England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의 예배 참석자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성공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소속 교회의 정기 예배 참석자는 약 100만9천 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교단 전체의 정기 예배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선 것이다.

특히 주일 평균 예배 참석자는 1.5% 늘어난 약 58만1천 명을 기록했다. 성공회는 이 수치를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상승세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주일 외의 예배까지 포함한 전체 예배 참석자는 1.6% 증가한 70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세례 및 견진식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024년 성인 세례는 약 8,700건으로, 2023년의 7,800건에서 증가했다. 견진식 역시 1만700건에서 1만 1,300건으로 늘었다. 다만 유아 세례는 감소세를 보였다. 교단은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유아 세례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세례 보충’ 현상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체스터의 로저 모리스(Roger Morris) 주교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는 팬데믹 이후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모든 지역이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지역 교회와 연결되고, 세례와 견진을 통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로서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이슬람, 무신론, 복음주의 등 다른 신앙 체계의 성장과 함께 회원 수가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소폭의 예배 참석자 증가와 온라인 관심도 상승은 교단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2024년 성공회가 운영하는 교회 검색 사이트 ‘AChurchNearYou.com’의 페이지 조회 수는 1억 9,860만 회로, 전년(1억 2,810만 회)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공회 디지털 부서장 아마리스 콜(Amaris Cole)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 행사, 가족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페이지 조회수의 증가가 1만6천 개 교회의 편집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있다”며 “더 많은 대중이 교회를 방문해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호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정년기초성경봉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면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속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3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성원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8:00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10: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화~금)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편집 모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30

고광선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공부 오후 7:30

김광광 목사 백승우 목사

우리가교회
3435 Wilshire Blvd. # 570(F), LA, CA 90010
T. (323) 610-6989, www.woorigachurch.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편집 모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황영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영유아: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영우도회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화~금) 6:00(화~금)

이홍민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 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encecgcc.org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창강예배(월~금)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학령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장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성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림학준 담임목사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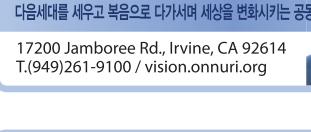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열반온누리교회

다임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한기홍 담임목사



남성수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김종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신용환 담임목사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성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1부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교황청 “성모 마리아에 ‘공동 구세주’ 칭호 부적절”… 수백년 논쟁 종결

교황청 “성모 마리아에 ‘공동 구세주’ 칭호 부적절”… 수백년 논쟁 종결



교황청, ©Pixabay/Luca

교황청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동 구세주’ 칭호는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문을 밝히며, 이를 둘러싼 수백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4일 가톨릭뉴스에이전시(CNA)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날 이 같은 치침을 발표했다. 신앙교리부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려 온 구원의 문을 연 존재”라며, ‘공동 구세주’ 대신 ‘하느님의 어머니’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즉,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서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치침은 10월 7일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을 받은 새 교령에 따른 것으로, 신앙교리부 장관 베트로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이번 치침이 일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 공경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양 극단을 피하도록 돋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말레이시아 법원 “레이몬드 코 목사 실종, 정부·경찰 책임”



레이몬드 코 목사 ©한국순교자의소리 제공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레이몬드 코(Raymond Koh) 목사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총 3,100만 링깃(약 106억 6,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할 것과, 사건을 재조사하고 그의 행방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5일(현지시각) 코 목사의 아내 수잔나 리우(Susanna Liew)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책정된 손해배상액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인권 관련 사건 중 최대 규모다.

판결 후 리우는 기자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려 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것이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가족에게 정의와 종결을 안겨 준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투쟁과 심판을 남편 레이몬드 코 목사와 모든 강제 실종 피해자들에게 친친다”고 덧붙였다.

코 목사는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정체불명의 인물들에게 납치됐다. 범행 장면은 인근 CCTV에 포착됐으며, 현장에는 수십 명의 행인이 있었다.

그의 가족은 오랫동안 “경찰이 납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2019년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SUHAKAM)의 조사 결과, 경찰 특수부대가 코 목사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비밀로 분류됐던 정부 보고서에는 납치를 주도한 공무원이 기독교인과 시아파 무슬림에 대해 극단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며, ‘불량 경찰’들이 작전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코 목사가 무슬림 개종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는 누구에게도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말레이시아 헌법 제3조는 “이슬람은 연방의 종교”라고 명시하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 평화롭고 조화롭게 실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11조에 따라 각 주 정부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타종교 전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무슬림, 특히 말레이인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슬람을 떠나는 행위 또한 샤리아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말레이인은 모두 법적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되며, 종교를 바꾸려면 샤리아 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받을 수 있음을 거부하는 거이다.

코 목사는 페탈링자야 지역의 복음주의 자유교회 소속으로, HIV/AIDS 감염자, 회복 중인 마약 중독자, 미혼모와 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하라판 코무니티’(Harapan Komuniti)를 설립했다.

그러나 셀랑고르 이슬람 종교부(JAIS)는 2011년 그의 단체가 주최한 만찬을 금지해 “무슬림을 개종시켰다”며 참석자들을 조사했다. 국제 박해 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후 가족들은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원은 시아파 무슬림 암리 체앗(Amri Che Mat)의 실종 사건에서도 정부와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의 아내 노르하

美 “교실 내 십자가 설치한 교사, 종교적 중립 위반” 판결



코네티컷 공립학교 교사 마리솔 아로요-카스트로가 2025년 9월 29일 워싱턴 D.C. 성경 박물관에서 열린 종교자유위원회 청문회에서, 교실 내 십자가 설치와 관련해 학군과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 법무부/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 코네티컷주 뉴브리튼(New Britain)의 공립학교 교사 마리솔 아로요-카스트로(Marisol Arroyo-Castro)가 교실 안에 십자를 설치했다가 교육구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연방 판사가 교사 측의 예비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미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라 러셀(Sarah Russell) 연방 지방법원 판사(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는 11월 4일 발표된 판결에서 아로요-카스트로가 제기한 종교의 자유 침해 소송의 초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로요-카스트로는 2008년부터 뉴브리튼 통합교육구 산하 디로레토 초·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 왔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주변과 교실 벽에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여러 장식품을 걸어 놓았으며, 그 중에는 십자가도 포함돼 있었다.

2024년, 학교 행정 담당자는 아로요-카스트로에게 교실에서 십자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측은 “공립학교 교실은 종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암시하거나 전파 할 수 있는 물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아로요-카스트로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보수 성향의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와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

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러셀 판사는 “카스트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물건을 게시한 것은 공적 직무의 일부로 이뤄진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교실 벽의 장식은 교사의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통제를 받는 공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아로요-카스트로가 주장한 수정헌법 제1조상의 언론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이번 사건에서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실 안 십자가 전시는 ‘교사의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직무 수행 중의 공적 표현’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러셀 판사는 그녀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주장으로 승소할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의 키샤 러셀(Keisha Russell) 선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지방법원의 결정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명확히 어긋난다”며 “교사에게 자신의 근무 공간에서 종교적 물건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마리솔의 종교적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공립학교의 종교적 중립 의무 사이의 균형이 다시 생점이 될 전망이다.

신미쉘 기자

올림픽 수영선수 라이언 록티, 세례 통해 예수님께 삶 재현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12개의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수영선수 라이언 록티(Ryan Lochte)가 최근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다시 혁신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혼과 재활 치료 등 개인적 사연을 겪은 록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전부”라며 신앙 회복의 새로운 길에 나섰다.

지난 2일, 록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성장의 시기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며 “오늘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다시 드리기로 결단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내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랜 세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플로리다주 알라주아(Alachua)의 캔버스 교회(Canvas Church)에서 세례를 받는 영상과 함께 여자친구 몰리 길리한(Molly Gilihan), 자녀들과 함께한 사진이 포함됐다. 기독교 가수 코리 애스버리(Cory Asbury) 등 여러 인사들도 “놀랍다, 형제여!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댓글로 축하를 전했다.

록티는 올림픽 역사상 마이클 펠프스 다음으로 많은 메달을 보유한 남성 수영 선수로, 12개의 올림픽 메달 중 6개가 금메달이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이면에서 수차례 논란과 시련을 겪었다. 2016년에는 미국 올림픽위원회와 수영협회로

부터 10개월 자격 정지를 당했고, 2018년에는 도핑 위반으로 14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54일째 금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균황을 전했다. 록티는 2023년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우울증과 외로움,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겪었다”며 “그 사고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아직 네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록티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번 신앙적 결단이 그 여정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의 아내 케일라 레이 리드(Kayla Rae Reid)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깊은 기도와 성찰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며 결별을 공식화했다. 그녀는 “결혼은 내게 매우 소중한 가치였기에, 이번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도전적인 시기였다”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깨어진 자리에서도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리드는 록티가 이혼 전 자녀들 앞에서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이언은 약물 남용의 역사가 있으며, 여전히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양육권 분리에 대한 법적 요청을 제기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부 07:30AM -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gmc.org

장수영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강문수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拉斯베가스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김경진 담임목사



유경재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손창민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이정현 담임목사



곽덕근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이충환 담임목사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지동근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ol.org

박성호 담임목사



임인철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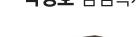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임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v.org

임인철 담임목사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4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vkcc.org/lvk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E. drj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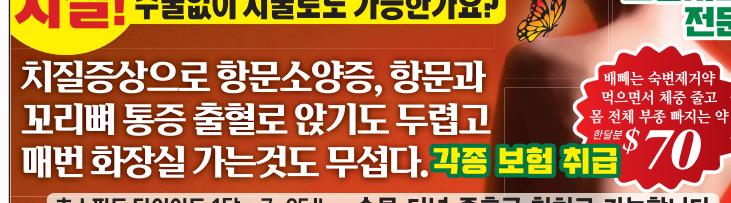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 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LA 백송교회 컨퍼런스 “유튜브 ‘관종’ 사랑에 목마른 현대인의 자화상”

유튜브와 SNS에서 관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이른바 ‘관종(관심종자)’ 현상—LA백송교회가 이러한 현대인의 뒤틀린 욕구의 뿌리를 ‘사랑의 결핍’에서 진단하며, 영적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11월 2일 열린 제20회 성령 컨퍼런스 ‘부흥을 부르는 치유(8) –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창조적인 사랑’ 집회에서 김성식 목사(LA백송교회 담임)는 현대인의 병든 자화상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하나님의 사랑 회복’만이 진짜 치유라고 강조했다.

LA백송교회는 10월 25일(토) 이순희 목사 창연콘서트를 시작으로, “부흥을 부르는 치유”라는 주제로 11월 5일(수)까지 11일간 매일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 사랑을 구걸하는 사회… “관종은 사랑 결핍의 외침”

이날 메시지에서 이순희 목사는 호세아 11장 1~9절을 본문으로, 무조건적 사랑만이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임을 선포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진다”며, 사랑 결핍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결혼, 부모 역할, 자아 정체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사랑은 결혼 후에도 계속 외로움으로 남습니다. 돈과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사는 사랑 결핍의 사회적



롱비치에 있는 LA백송교회가 성령 컨퍼런스를 열었다. © 기독일보

부산물로 ‘관종’ 문화를 언급했다.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SNS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과한 행동을 서슴지 않죠.”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이 “좋아요 1만 개 달리면 차에 갈리겠다, 전구를 먹겠다, 생쥐를 썹어 먹겠다, 락스를 마시겠다, 오물 샤워를 하겠다” 등의 충격 콘텐츠를 실행하는 현상도 지적하며, “이는 사랑 결핍이 가져온 극단적 왜곡”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을 인용해, 현대인이 느끼는 가장 큰 고독의 원인을 ‘자기 상실’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 조건부 사랑의 시대… “하나님 사랑만이 사람을 회복시킨다”

이 목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다”며, 인간의 사랑 결핍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 전반에 퍼진 조건부 사랑의 문제를 꼬집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부 사랑이 많습니다. 부모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녀는 스스로를 부적절한 존재로 여기며, 항상 긴장 속에서 사랑을 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6-7을 인용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불드시는지 설명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총은 30개의 가치)으로 음행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적 불륜에 빠진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됐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셉 리기자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대회서 4명 수상 쾌거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이하 “KAC MUN”) 프로그램 학생들이 11월 8일과 9일, UCLA 대학교에서 열린 제33회 BruinMUN 대회에서 총 4개의상을 수상했다. 미국 전역 150여 개 학교에서 약 2,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KAC MUN 소속 학생들은 탁월한 외교력, 리더십, 협상 능력을 선보였다.

한미연합회 기사 제공



모의 유엔 학생들이 모의유엔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미연합회 제공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딜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지금 무엇과 교환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20년이 넘은 이야기이지만 화젯거리 된 내용입니다. 미국 뉴저지 주 우드브릿지에서 24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젠틴 페르난데스’라는 이 여인은 다섯 살 난 딸 하나님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시가로 3만 5천 달러의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만 불 상당의 도요다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행용자 상환금과 딸의 사립학교 학비 등

으로 지출이 많아 낮에도 일하고 부수입을 위하여 가구점인 ‘포추노프’에서 밤일을 했습니다. 밤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차에서 재웠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잠에서 깨어 둡시울고 있을 때 이를 경찰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수입이면 밤에 몇 시간씩 땀을 돌보아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 말에 의하면 두어 번 사람을 써보았는데 하는 일이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나빴고, 그래서 자동차 속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화젯거리가 되었고, 동정과 욕을 동시에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나라가 주는 사회복지금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족한 직업여성의 모범이며 미국 여성의 영웅이다.”라고 동정론을 했습니다. 반면 “몸 쓸 여자, 돈만 아는 인간, 무정한 어머니” 등

비판의 화살도 많았습니다. 재판은 정상참작을 많이 해서 실형이 내려지지 않고 모녀가 상봉하는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이 사건은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교환하며 사는 것인데, 나는 지금 무엇과 교환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30분 가게를 더 열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잠을 더 잘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성경을 읽을 것이냐 하는 작은 일부터 일평생 여러 종류의 교환을 하며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아름다운 것과 자기의 어떤 것을 교환한다는 것이고, 주한 삶이란 주하고 더러운 것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성공하는 것과 교환한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과 교환한 것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나의 생명, 1회 뿐인 나의 삶을 무엇과 교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축복의 에덴동산에서 하

나님의 사랑을 마귀의 유혹과 교환해버려 실패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성공의 길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의심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순종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아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런 교환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각자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효도잔치와 교환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교환하며 살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 만을 기도드립니다. 살롱!!

강준민 칼럼

상처는 은혜의 빛이 스며드는 틈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상처는 아픕니다. 상처를 입은 곳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상처는 몸과 마음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치유된 후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상흔(傷痕)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상흔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바로 그 상흔이 도마의 악한 믿음을 강하게 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전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손의 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셔서 손의 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 도마는 예수님의 상흔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께서시니이다”(요 20:28)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은혜의 빛이 스며드는 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상처의 역설적인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상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인간은 매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처를 다루는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상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창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어 준 채색옷을 찢었습니다. 그의 꿈을 조롱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젊은 날은 상처가 덧입혀지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의 상처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때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종리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요셉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셉은 받은 은혜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으며,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창 50:20).

둘째, 은혜의 빛은 상처를 통해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힐 뿐 아니라 모

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은혜의 빛이 임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는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안셀름 그륀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치유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지워버리는 힘이 아니라 그 상처를 빛을 발하는 도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셋째, 상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없애지 않으시고, 흔적을 통해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드십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가운데 ‘긴초기(金継ぎ)’가 있습니다. 도자기는 충격에 약해 잘 깨집니다. 그러나 ‘긴초기’는 윗질과 금박으로 깨진 부분을 이어 붙여 새로운 예술로 재탄생시킵니다. 이 기법은 15세기 아시카가 요시마사 쇼군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쇼군은 자신이 아끼던 찻잔이 깨져 찻잔이 만들어진 중국에 보내 수리를 맡겼습니다. 중국에서 수리되지 못한 찻잔은 철사로 엉성하게 둑인 채 돌아왔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는 일본 장인들에게 찻잔을 복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이어 붙여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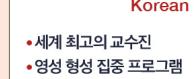
‘긴초기’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상처는 감춰야 할 흠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이 피어날 자리다.” 금으로 이어붙인 도자기는 원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빛납니다. 깨어짐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은총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긴초기’ 공예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덮지 않고, 그 안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상처 안에 거하실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빛이 새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욱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넷째, 치유된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약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헨리 나우웬은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우리의 상처가 은혜로 치유될 때,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상처 입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요 19:34).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생명의 샘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는 인류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깨어진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로 회복시키십니다. 상처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우리 생을 더욱 아름답게 빛어 가십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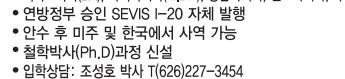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회(M.Div), 신학회, 선교학회,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운 박사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GATEWAY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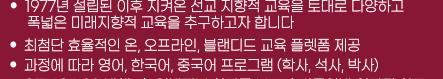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주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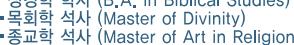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E-mail: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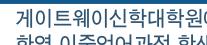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개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국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info@evangelia.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E-mail: admissions@wmu.edu

www.wmu.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E-mail: admissions@wmu.edu

www.wmu.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E-mail: admissions@wmu.edu

www.wmu.edu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유틸병원, 혜민병원

혜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 산부인과 질 초음파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진료합니다.

- ♣ 뇌 MRI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1,2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 가능)



종합건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

김한요 칼럼

섬티아고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증도는 거의 99%의 주민이 교회를 다니는 섬이 되었습니다. 약 2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교회가 11개나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물이 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국 CCC 창시자 김준곤 목사님과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이만신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남편에게 시집을 오면서 극심한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한글을 깨우치고, 서른 넘어 신학을 공부하여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공산주의자들의 박해가 심해진 상황에서 결국 끌려 갔다가 서울이 수복되었지만, 증도의 성도들은 계속 아직 달아나지 못한 공산당에 의해 곤욕을 치루는데 문준경 전도사는 섬마을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증도로 돌아와 자기를 죽이고, 성도들을 놓아달라 애걸하여 문준경 전도사만 순교당하고, 모든 성도들은 풀려 났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빛나는 본보기가 된 문준경 전도사님의 생애를 기리며, 만

든 것이 섬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여론은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이런 순례길을 만든 것을 반대하여, 12사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가, 다시 증도 기독교인들이 현금하여, 사도들의 이름을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곳저곳에 남아 있는 기념관들, 박물관들, 그리고 순례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을 보존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

길에 잃어 버린 것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중히 간직된 유물들을 통해 신앙을 전수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한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여행 가이드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3대 가족이 신양전수를 목적으로 이런 투어를 일부러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곧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념비적인 은혜의 역사가 대를 이어 3대가 함께 디아스포라 교회의 신앙을 지켜가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파란 지붕에 하얀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다녀온 순례길에 섬티아고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소악도에 문준경 전도사를 기리며 만들어 놓은 12개의 기념 건물을 돌아보는 길로서 12사도의 순례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12사도의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 약 4-5마일 길에 띄엄띄엄 세워졌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름이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증도라는 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구봉주 칼럼

선교와 팔랑카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명하여, 선교사님과 선교지 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동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두 선교지역은 계획해서 선교센터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12월 초에는 푸에르토 베냐스코 단기 선교 및 선교센터 현당예배가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1층 예배실이 완공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나, 2층 내부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을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나라에서 54년 동안 선교하신 아이사 아서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2010년 향년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한 나라에 50년 이상을 헌신하는 일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것도 아프리카 최빈국인 기니비사우에서 말입니다. 아이사 아서는 스코틀랜드에서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간호사 교육을 받은 그녀는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도하던 중 소명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아 고아와 나병환자들을

돕기 위해 선교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원 사역과 더불어 구제사역, 성경번역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54년의 선교사역을 끝으로한 채, 병실에 누워 있을 무렵, 한 기독교 신문 기자가 그녀에게 “지금까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이사 아서는 성탄절 카드가 주령주령 매달려 있는 곳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성탄절 카드 때문입니다. 해마다 저를 파송한 교회의 아이들이 제게 힘을 주는 카드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이사 아서를 파송한 교회는 54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인지, 그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르치며, 후원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송교회, 스코틀랜드 침례교회는 아이사 아서가 소천한 다음 달까지 선교비를 보낸 후, 아이사에 대한 선교후원을 중단하였는데, 마지막 달 선교비는 아이사 아서의 장례에 쓰였다고 합니다. 결국, 파송교회의 54년 동안의 지속적인 후원과 선교

사의 신실한 사역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이 남겨졌고, 수많은 한센병 환자와 고아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선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교사의 신실함과 성실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파송교회와 후원교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스페니쉬 단어 중에 ‘팔랑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렛대라는 의미입니다.

선교는 지렛대의 원리처럼, 지속적인 영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물질과 선교편지와 같은 격려가 그것입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 모든 성도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깊은 관심으로 선교사님들께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팔랑카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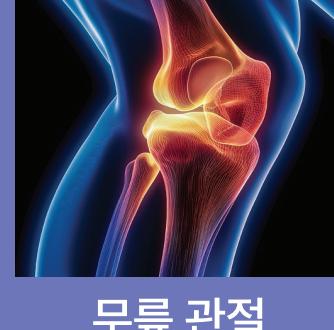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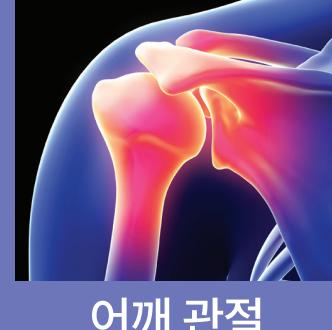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을
다시, 편안하게!"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염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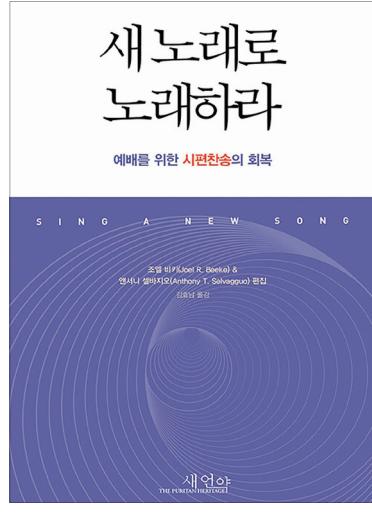


213.384.3333

www.kiseidousa.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시편을 버리면, 소중한 보물을 잃는다

너무 오래된 노래인 시편, ‘새 노래’ 될 수 있을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조엘 비키, 앤서니 셀바지오 |
김효남 역 | 새언약 | 328쪽 |
25,000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 찬양, 순종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식과 내용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한다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성경으로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시편찬송을 소개한다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편이 1800년 동안 교회의 공식 찬송가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일부 보수 장로교에서 시편 찬송을 고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나마 많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조엘 비키와 앤서니 셀바지오가 편집한 책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예배를 위한 시편 찬송의 회복〉에서 각 저자가 주장하는 것을 과하다고 느낄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엘 비키, J. V. 페스코, W. 로버트 갓프리, 데이비드 머리, 휴즈 올리펀트 올드, 앤서니 셀바지오, 데릭 토마스, 로랜드 워드처럼 여러 배경의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들뿐 아니라 로버트 캐스카트, D. G. 하트, 테리 존슨, 마이클 르페브르 등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저자들이 모두 한입으로 시편 찬송이 오늘날 교회 예배 음악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을 보면, 분명 대부분의 생경한 독자들(필자 포함)이 이 책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기독교 예배에 시편 찬송 외에 그 어떤 음악이나 찬송도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까? 그렇지 않다.

말콤 H. 와츠는 제8장 ‘시편 찬송 응호론: 기독교 예배를 위한 시편집의 충분성에 관하여’에서 그 어떤 저자보다 강력하게 예배를 위한 찬송으로 시편집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영감받은 찬송시 외에 다른 것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의 부당함 및 위험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다른 저자들은 예배 음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으면서도, 시편 찬송에 담겨 있는 역사적·성경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한다.

성도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메시지 중심적이고 그 메시지를 가장 잘 담아내는 음악적 요소를 수반하는데, 저자들은 시편 찬송의 음악적 요소를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서 빌려오자고 말하거나 더 거슬러 올라

가 구약시대를 더듬어 찾아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찬송이 담고 있는 메시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입에 넣어주신 찬송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많이 부르자고 간청한다.

시편은 너무 오래된 노래다. 게다가 구속의 절정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아주 멀리서 바라보던 시대의 찬송이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부를 ‘새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책 공동 편집자인 앤서니 셀바지오는 제9장 ‘시편 찬송과 구속사적 해석학’에서 개할더스 보스의 관점을 가지고, 구속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시편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성도가 시편 찬송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한다.

데이비드 머리도 제7장에서 저주를 담고 있는 시편에 관한 오해를 풀어준다. 오늘날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저주 시편’도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훌륭한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적절한 사례를 제공한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 속에서의 시편 찬송을 설명하는데, 독자는 시편 찬송이 교회 예배 음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오랜 세월 차지하고 있었는지 역사적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J. V. 페스코가 마지막 11장에서 시편 찬송이 교회가 부르는 노래뿐 아니라 드리는 기도까지 빚은 은혜로운 도구라는 것을 말하면, 마지막으로 인용한 본회피의 이 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시편이 버려질 때마다, 기독교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시편을 회복할 때 예상치 못한 능력도 함께 올 것이다”(321쪽).

제1부에서 시편 찬송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제2부에서는 성경에 시편 찬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에베소서 5:19)”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예배 음악이 가리키는 것이 시편의 분류와 같다는 의미 있는 주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할렐 시편 여덟



시편찬송을 들고 있는 삼송제일교회 His 시편 찬양팀. 가운데가 박미경 집사.

을 부르셨을 것이라는 합리적 주장

합니다(321쪽). ”

시편은 확실히 오래된 노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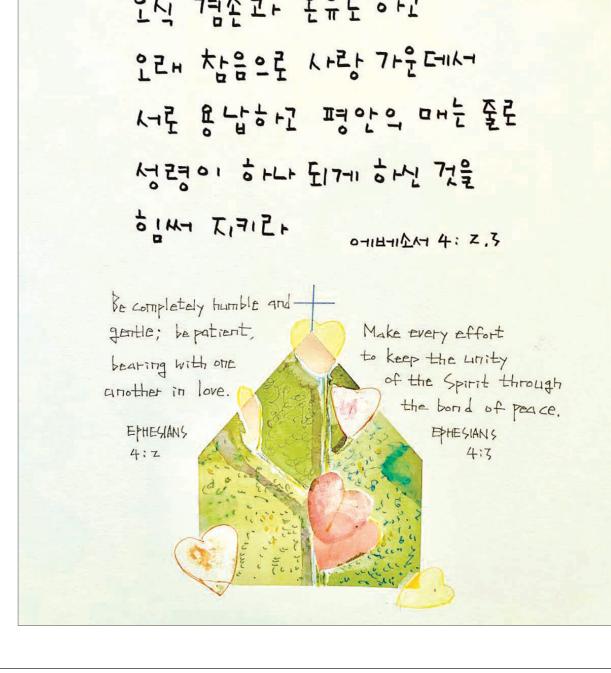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흘려 구원의 절정을 이루실 때, 시편을 새로운 의미로 불러 교회가 부를 새 노래가 되게 하셨다면, 그리고 교회가 부를 시편 찬송에 예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미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최후 승리,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게 될 종말에 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면, 시편 찬송은 마땅히 오늘날 교회가 사랑하고 불러야 할 찬송의 중심이 돼야 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퉁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안재기, 생명의 불꽃으로

‘깎고 다듬는 일’ 통해 일상의 예전 참여하는 작가

생명의 원천, 뿌리의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힘 보여주는 기능 죽은 것 되살리는 예민한 감성 유용성 넘어 이해와 교감 발전 떨깜이나 목재 아닌 신의 지문 영원한 살롬 맛보는 언약 기반

조각가 안재기는 우람한 나무밀동을 깎고 다듬어 거기에 ‘의미의 자락’을 추가하는 작가이다. 작가가 선택한 나무 밀동은 지면 아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는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지상으로 드러날 때뿐이다. 작가의 시선은 바로 이 순간에 맞추어져 있다.

나무 밀동의 이미지가 환기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존재의 궤적이다. 나무는 그동안 무성한 열매와 잎사귀를 내며 그 나름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 새가 쉬어가고 열매는 여려 야생 동물들에게 식량으로 제공되었으며 그들은 나그네에게 쉴 자리를, 운 좋게 목수를 만나 멋진 가구로 빛을 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나무에 오르거나 그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수명을 다해 지상에 떨어진 잎새들은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 숲의 푸르름을 더해주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 나무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작가는 그 비밀의 열쇠를 나무 뿌리에서 찾는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뿌리의 존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만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여 몸통으로 실어 나르지 않았다면 나무 자체의 존립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뿌리의 기능에 대해 다른 주장도 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뉴욕 무역센터의 주변 건물이 손상을 입거나 붕괴되었지만, 맨해튼의 세인트 폴 예배당은 어떤 손상도

입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 예배당 건물 옆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역센터가 붕괴될 때의 충격을 흡수해 예배당의 피해를 막아주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세인트 폴 예배당을 구한 ‘기적의 플라타너스 나무’로 불렀고, 이를 기념해 ‘트리니티 루트’라는 조형물을 세우기도 했다.

안재기가 뿌리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영양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이었을까, 아니면 지반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이었을까. 그의 의도는 이런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보다 심층적인, 본질적인 의제에 그의 관심이 모아진다.

“뿌리의 기능은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을 보여주는 데 있다.” 작가는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며 그 배후의 세계가 자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작가는 작품에 ‘생명길’, ‘생명문’, ‘생명향’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을 메타포라고 부를 때, 그의 작품은 모든 생생체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창작의 범주 속으로 수렴한다.

이미 사망선고까지 받은 나무 밀동은 작가에 의해, 이제 생명이 수혈되어 새로운 존재, 즉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이미지로 재탄생한다.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며 ‘생명의 향기’가 나는 ‘생명 충일한 존재’로서 말이다.

그의 작품을 볼 때 맨 먼저 마주하는 것은 존재의 반전이다. 그 자연물들은 작가의 선택이 없었다면 익명의 존재, 곧 어떤 시선이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물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은 것을 되살린 것은 일상의 어떤 것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작가의 예민한 감성 내지 이해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리라. 그것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제 죽은 나무가 아니라 의미내용을 갖춘 어엿한 예술품으로 조

형의 바다에 진 수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작가가 나무 밀동을 대할 때 주제적 측면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다. 작가는 물상의 색깔과 형태, 윤택과 촉감에서 어떤 감각의 기쁨과快感을 느끼고 부분적으로 자르고 다듬고 고쳐 이를 재탄생시킨다. 가만히 보면 그것들은 고유의 피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색감, 무늬, 형체 면에서 어디 흡집을 데가 없다.

그러나 작가는 나무의 기본 구조를 무리하게 바꾸거나 변형시키는 일은 자제하고 있다. 움푹 파이고 휘어지고 뭉치며 빠져나온 형태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작가는 구상한 형태와 구조를 제외하고 원래의 나무(행나무, 은행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등)가 지닌 무늬나 색깔, 향을 보존하고자 했다.

작가에 따르면 나무를 다룰수록, 더 목재의 매력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주의를 기울여 보면 물리적 대상도 ‘유용성’을 넘어 ‘이해’와 ‘교감’, 그리고 ‘친화’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누구에게는 ‘땔감’이나 ‘목재’로 받아질 법한 것을, 작가는 그 속에서 ‘신의 지문’을 발견한다. 여기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창조주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 그의 솜씨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예술품의 존재와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작가의 의식 상태, 곧 설명할 수 없는 것의 발견에서 평소에 지닌 신념과 확신과 목표까지 그 범위가 넓은 편이다. 미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 Woltersstorf)는 이것을 ‘작품의 이면 세계 (the World behind the Work)’라고 불렀다.

물론 예술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갖는 다른 풍부한 연관성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예술 작품과 예술가의 신념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이면 세계는 작가의 창작행위와 작품내용을 형성하는 중핵적인 요소가 된다.

안재기의 경우 예술의 근간을 종교적 삶, 구체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



▲안재기, 소망, 27x18x74cm, 2024.

다. 그런 높은 가치들이 작품 형성 과정을 관통하고 있다. 작가가 나무 밀동을 일개 자연물로만 인식하지 않고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빛의 무한한 근원에서 충만한 빛이 발산되어 사방에 비주어지듯, 현재는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젠가는 ‘영원한 살롬’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언약적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상에 비전을 주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작품 내부에 전달되어 생명의 찬가를 낳는다. 그것은 뭐랄까, 태양이 햇빛을 끊임없이 비주는 것처럼 어떤 리듬에 실려 세상에 잔잔히 울려 퍼진다. 이를 체험한 사람은 전율한다. 이 지점에서 안재기 작가는 기쁨의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 바뀐다.

이때의 기쁨에 대해 부언하자면, 어떤 쾌감보다 깊고 넓으며, 종체적 선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 역시 비슷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나이다(시편 104:24).” 그의 작품은 온 몸으로 부르는 노래이자 고백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본다.

오늘도 작가의 작업실에서는 끝과 망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이른 시간에 시작하여 밤늦도록 이어지기도 한다. 그의 작업은 이 땅에 가득한 생명을 찬미하는 예전(禮典)과 같은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일, 즉 깎고 다듬는 일을 통하여 일상의 예전에 참여한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안재기, 불꽃-1, 112x74x73cm, 2024.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물류 1-877-580-2424 샘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병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拉斯, 이탈리아,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복음의 등불로 다음 세대와 열방 향해”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드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는 지난 11월 2일(주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연합 감사예배를 드리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반세기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가 속한 남침례교단의 주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자리해 경건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남침례교단 주요 목회자들은 교회의 지난 혼신과 수고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송경원 담임목사는 “반세기 동안 변함없는 은혜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복음의 등불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며 “지난 50년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 의 은혜였고, 성도들의 믿음과 눈물의 혼신이 오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토대를 세운 문창선 원로목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 개척을 도와준 레이크우드 제일침례교회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38세의 젊은 나

이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여러 차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다”며 “찬양이 넘치는 교회, 다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국제적인 교회가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 앞으로도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

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에서는 남침례교단 총회장 제프 아이오그 박사(Dr. Jeff Iorg, 전 게이트웨이신학교 총장)가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계획하다”(살전2: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아이오그 박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낸 교회”라며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참된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재정 규모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있다”며 “앞으로도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경 목사(미주 남침례회 한인 교회 총회장 / 엘파소중앙침례교회)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성도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민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왔다”며 “사랑이 넘치고, 전도가 활발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Lance Caddel 사무총장(Northwest Baptist Convention)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로, 지역과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강승수 목사(한인 남침례총회 총무)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 문창선 원로목사님과 송경원 담임목사님, 그리고 모든 시역자들의 혼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나님께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 중에는 캐나다,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선교사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송경원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윤준 기자

체 안 목사,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공식 출마 선언

미국 보수계자 주목하는 지도자 체 안(Ché Ahn)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18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크 소재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에서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을 갖고 한인 사회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체 안 후보는 한국전쟁 직후, 한국에서 태어나 1958년 5살 어린 나아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이민자의 아픔을 겪으며 방황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혼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폴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40여 년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족, 공동체, 신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미국의 회복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체 안 후보는 패서디나에서 40년 전에 주수 반석 교회(Harvest Rock Church)를 개척한 후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72개국에 2만 5천여

교회가 협력하는 하베스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HIM)를 이끌며 전 세계를 품고 일하는 지도자 중의 지도자입니다.

체 안 후보는 또한 자유 수호의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이런 그의 열정을 미국 주류 사회가 주목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체 안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든 교회의 현장 예배를 금지했을 때, 그는 140여 개 교회와 연합해 연방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 판결과 승리는 미국 주류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미국이 주목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체 안 후보는 단순한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저술가(12권의 저서)로 강연자로 세계 각국의 리더쉽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 기업인 멘토링, 비

영리단체 후원, 공공리더 자문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믿음과 용기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체 안 후보는 “새로운 비전, 담대한 리더십,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다. 그는 교육 개혁, 공정한 경제, 지역사회 복원, 가정 중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



체 안 목사가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는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에 관하여는 11월 16일까지 (714) 878-1289로 RSVP를 보내면 됩니다.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투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 구매, A/S상담(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을 위한 단순한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저술가(12권의 저서)로 강연자로 세계 각국의 리더쉽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 기업인 멘토링, 비

교육 개혁, 공정한 경제, 지역사회 복

원, 가정 중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분열이 아닌 연합으

로,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

는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고 강

조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에 관하여는

11월 16일까지 (714) 878-1289로

RSVP를 보내면 됩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65세 10불씩 5내는 생명보험, 절대 취소하지 마십시오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유튜브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65세, 와이프는 62세인데 제가 11월에는 은퇴할 예정이라서 직장에 있는 401k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문선영씨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와이프랑 뱐이 됐습니다. 저희는 직장에서 모아놓은 401k와 와이프 앞으로 있는 IRA를 함께 합쳐서 문선영씨랑 상담해 봐서 어려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은 애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취소를 할 생각인데요. 저는 30만불짜리 생명보험 23년 됐고요 한달에 150불씩 내고 있고 와이프도 30만불짜리 보험료 130불을 내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아이들도 다 컸고 본인들 알아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한테 뭐 보험을 남겨줄 필요도 없고, 150불에다가 130불 해서 넣은 보험이 크기는 않지만 쌓아 있는 그 돈하고 앞으로 낼 보험료 280불 보험료를 아껴서 그 돈으로 401k 하는 어뉴이티에 보태거나, 따로 우리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선영씨 만나서 상담하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401k도 있으시고 IRA 그리고 생명보험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은퇴를 하시게 되면 보통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나오게 되고요, 선생님의 경우에 다른 인컴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401k 그리고 IRA에서 기본적으로 은퇴 후 찾아 쓰시기 시작할 겁니다. 401k와 IRA는 택스를 내지 않고 넓은 돈이기 때문에 찾아 쓰면서 택스를 내셔야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은퇴 자금이지요. 다만 선생님의 401k와 와이프의 IRA는 함께 합쳐지지 못합니다. 개인은퇴 구좌이기 때문에 이 두 구좌를 하나의 어뉴이티가 아닌 각각의 어뉴이티로 물오버 옮기시면 되고요, 생명보험은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은퇴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은퇴 플랜으로 활용하실 것을 오히려 제안드립니다.

보통 생명보험은 절어서 가입할 때는 내가 모은 자산은 얼마 없는 데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린 자녀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배우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이런 고민은 사라지지만,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십니다. 수명이 길 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오래는 사시지만 혹시라도 풍선퀴어 상황에서 바로 선생님이 살아서 받을 수 있

에 처하게 되면 어떠하나는 걱정이지요. 제가 있는 이곳 남아주에서 풍선퀴어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평균 얼마인줄 혹시 아시나요? 7,500불입니다. 한 달에 7,500불이요. 그러나 보니, 내가 401k를 그리고 IRA를 어뉴이티로 잘 옮겨서 은퇴 인컴으로 잘 손다 하더라도 선생님 두분 중 한분에 만약 풍선퀴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한 분에게 들어가는 요양 간호비나 시설비로 그 은퇴 비용이 모두 소비되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곡선을 한번 보십시오. 짧았을 때는 내가 모은 자산은 부족하지만 점차 그 자산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지요. 이때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일찍 죽으면 어떠하나는 걱정이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에 대한 책임이 줄게 되고 내가 일찍 죽는 경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혹시라도 아프면서 오래 살게 되면 어떠하나, 아이러니 하게도 너무 오래 살면 어떻게 하지?가 걱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은퇴 후 내가 풍선퀴어 상황으로 모든 자산을 다 소모하지 않도록 내 은퇴 자금을 보호하는데 이 생명보험은 아주 귀하게 효과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생명보험에서 사망해서 자녀에게 남겨줄 사망보상금을 풍선퀴어 상황에서 바로 선생님이 살아서 받을 수 있

는게 바로 생명보험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23년된 생명보험인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풍선퀴어 상황에 서도 내가 살아서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리빙베네핏이 포함된 보험으로 바꾸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풍선퀴어 상황에서 선생님이 각각 30만불씩에서 살아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시고 의문도 드실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 상당 잡고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401k와 IRA는 어뉴이티로, 생명보험은 리빙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잘 새롭게 단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선영 머니토크에서 만나요. 11월 15일(토) 10am ~ 2pm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스 운영 특별세미나: 은퇴의 필수, 어뉴이티 장소: 남가주 세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현장 부스에서 상담도 가능하며, 많은 경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626-827-9599

씨에서 살아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시고 의문도 드실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 상당 잡고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401k와 IRA는 어뉴이티로, 생명보험은 리빙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잘 새롭게 단장해 드리겠습니다.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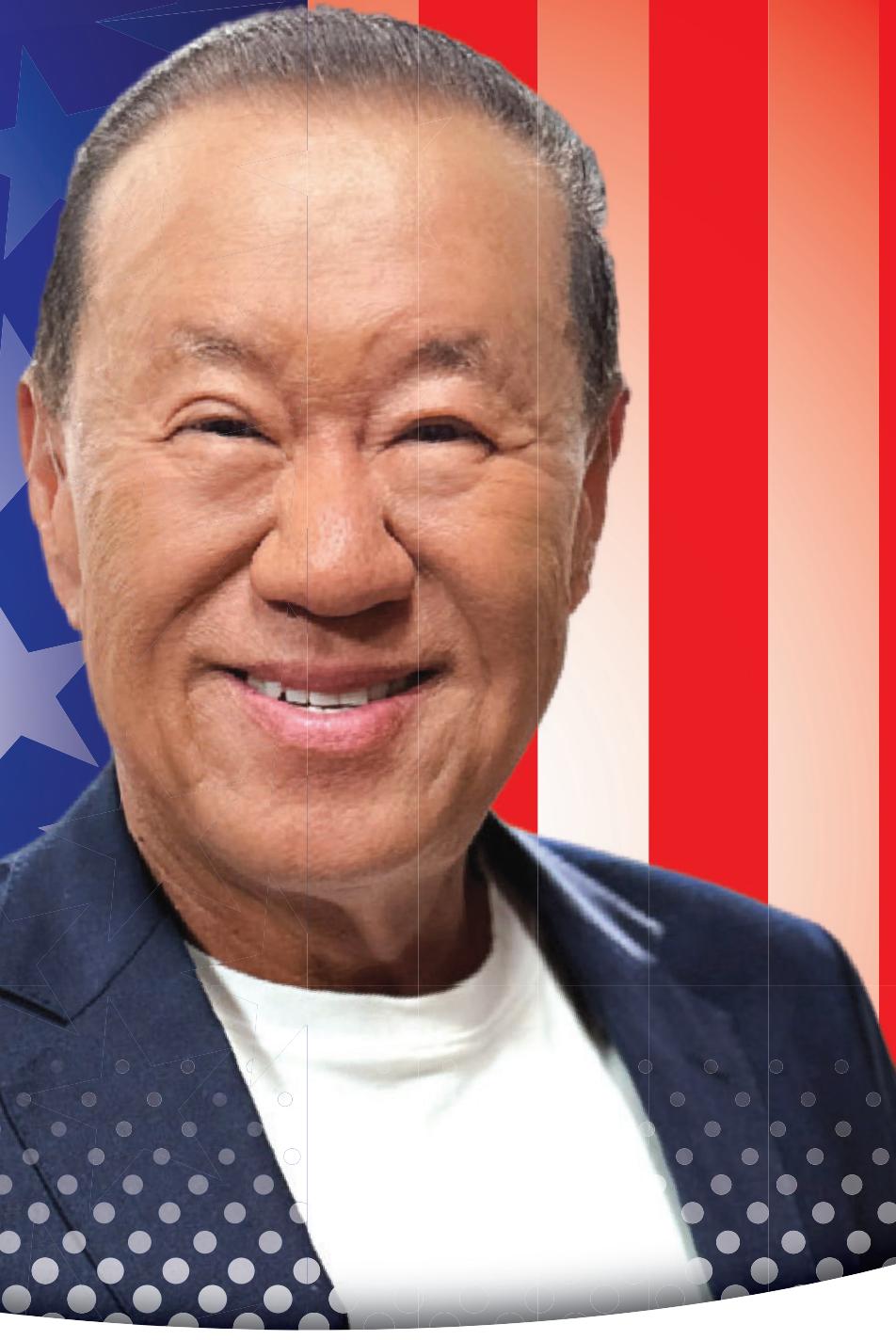
Finance & Marketing
WISE CALIFORNIA

626-827-9599

CALIFORNIA FIRST!

한인 최초 유일한 공화당 주지사 후보

CHÉ AHN
★ FOR GOVERNOR ★



“부모님 손을 잡고 5살에 이민 와서 생존을 위해 기도했던 안재호(체 안)는
위대한 동포 여러분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Survive〉
〈Thrive〉

- ✓ 풍요롭고 번영하는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 ✓ 깨끗하고 안전한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 ✓ 정의롭고 공정한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안재호(Ché Ahn)후보가 나섰습니다.



www.che4ca.com

CHÉ AHN
★ FOR GOVERNOR ★